

광주시, 오늘부터 시내버스 증차 운행

학교 개학시기 맞춰 수요맞춤형 운행 확대

출근시간대 운행간격 단축·집중 증차도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19일부터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정상 운행된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운행간격을 줄여 버스 이용 불편을 줄인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 탄력배차를 확대하는 등 수요맞춤형 시내버스 운영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각급 학교의 개학에 맞춰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은 운행간격이 1~10분,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노선은 5~15분 정도 줄어들게 된다.

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름방학 기간 예치 절약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6일간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준 62개 노선에서 123대(12%)를 감축 운행해왔다.

시내버스 정상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광주광역시버스운행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 수요를 창출하고 승객이 일시에 몰려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운행간격을 줄이는 탄력배차를 확대한다.

탄력배차는 주요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오전 출근(등교) 시간대 운행간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러시아워에 운행횟수가 798회에서 933회로 135회 늘어나 증차 없이 최대 5분 정도까지 운행간격을 좁히게 된다.

출근(등교) 시간대 수완03, 진월07번은 6분대에서 4~5분 간격으로 단축되고, 19·20분 간격으로 운행한 운림



50, 금남59번은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광주시 시내버스는 19일부터 999대의 버스가 101개 노선에서 하루 8334회 운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체와의 탄력배차 확대 적용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탄력배차 확대를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혁신로드맵

의 실현 가능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각급 학교 개학을 맞아 학교를 경유하는 간선노선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차량을 증차하고 운행간격을 단축했다"며 "승객이 몰리는 오전 출근 시간대 탄력배차로 버스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내일 지산2동 마을사랑채 개소

광주 동구가 오는 20일 마을커뮤니티센터 중 첫 번째로 지산2동에서 '마을사랑채' 개소식을 갖는다.

구 동계부녀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지산2동 마을사랑채는 지난 1월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 및 공간디자인을 정하고 총사업비 2억2천만 원을 들여 45평 규모로 다목적실, 공유부엌, 이아기방 등을 갖췄다.

지산2동 마을사랑채는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현안을 해결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구 자율방재단,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광주 서구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조광환)은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맞아 광주를 방문한 손님들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캠페인을 진행했다.

9일에는 영주체육관 아티스틱스수영장에서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생수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11일과 13일에는 광천사거리 수영대회 도심부스에서 행동요령을 홍보했으며, 광복절인 15일과 17일에는 자율방재단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폭염 행사를 진행했다.

남구, 셰프 되고픈 직장인·중년男 모여라

광주 남구는 알차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20~40대 직장인과 50~70대 중년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9월에 2040 직장인 요리교실과 5070 남성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문을 연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남구는 100세 시대를 맞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2040 직장인 요리교실은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봉선동 아시아요리학원에서 진행된다.

양장피를 비롯해 잡채, 매운 닭집, 쇠고기 편채, 칠리새우, 삼성 해물볶음, 해물 정반짜장 소스, 리코다 치즈를 곁들인 부르스케타, 클럽 샌드위치, 토스트 브런치, 봉골레 스파게티 및 돼지 안심구이 등 다양한 종류의 요리 레시피를 배우게 된다.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광주 유일 최우수상

광주 북구가 지역주민과 함께 실행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북구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주민 참여도 등 4개 분야 17개 평가지표 전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의 공유·확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광산구,야호센터서 최초 드론 축구대회 개최

20일 광주 광산구가 월곡동 청소년문화의 집 '야호센터'에서 광주 지자체 최초로 드론축구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야호센터 드론축구 워크숍에 참석했던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갈고닦은 조종 실력을 겨루는 장

광산구는 (사)대한드론축구협회, (유)빛고을드론과 '드론으로 만나는 미래 사회'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로교육 'IT·민 프로젝트'의 하나로 어린이 120여명이 참가하는 드론축구 워크숍을 진행했다.

'야호' 이틀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산구 5개 지역야호센터 어린이 50여명이 '야호센터팀'을 비롯한 10개 팀으로 참가해 조별리그 예선전과 토너먼트 본선전에서 각축을 벌인다.

임형택 기자

정인화 '아동 리얼돌

판매 금지법' 대표발의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최근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영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이하 '아동 리얼돌')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국내 수입을 둘러싼 인천 세관과 성인용품업체의 분쟁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었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성적 대상화와 성적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4년간 방치 '표정두 열사 추모비' 5·18기념공원 이전

문제인 대통령 호명 후 재조명...5·18 진상규명 관련 활동 인정

5·18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1987년 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호남대 출신 고 표정두 열사의 추모비가 방치된 지 4년 만에 5·18기념공원으로 옮겨진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16일 5·18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표정두 열사 추모비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추모비는 9월 18일 5·18기념공원 내 광주학생교육문화관 김용근선생 흉상 옆에 이전 설치된다.

표정두 열사 추모비는 1987년 3월 광주 5·18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분신 산화한 열사의 정신 계승을 위해 1991년 호남대 학생들이 기금을 모아 설립했다. 추모비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분관 앞에 '반미구국 활상표정두 열사 혁명정신 계승비'라는 제목으로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새겨진 대단 위에 세워져 있다.

표 열사 추모비는 지난 2015년 대학 측이 쌍촌캠퍼스를 광주 광산구 서봉캠퍼스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4년 넘게 방치됐다.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장은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해 명예졸업장 수여와 추모비를 대학 캠퍼스가 이전한 광산구 분

교로 옮겨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학 측은 표 열사가 대학을 중간에 자퇴해 제적생 신분인 데다 학교가 추모비를 세운 것도 아니어서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이전을 반대했다.

담보상대에 있던 추모비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18 제37주년 기념사에서 박관현·조성만·박래전 열사와 함께 표 열사를 호명해 열사의 삶이 재조명되면서 재논의됐다.

호남대와 광주시,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는 2017년 회의를 갖고 표 열사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와 추모비 이전을 논의했다.

하지만 호남대는 표 열사에 대한 명예졸업장은 수여할 수 있어도 추모비 분교 이전은 안된다며 거부했고, 결국 광주시가 다른 부지에 추모비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거듭된 논의 끝에 표 열사가 5·18 유공자는 아니지만 5·18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5월 단체가 통크게 수용하면서 5·18기념공원에 추모비 이전이 결정됐다.

서민수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5·18관련 시설에 이전을 허락해 준 5월단체와 이전 노력을 기울여 준 광주시에 깊은 감사



광주 서구 호남대학교 옛 쌍촌캠퍼스 분관 앞에 서 있는 '반미구국 표정두 열사 혁명정신 계승비'. 지난 2015년 쌍촌캠퍼스가 광산구 서봉캠퍼스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4년 넘게 방치돼 있다.

를 드린다"며 "대학 측이 추모비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표정두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립 157-100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